

2023

11.30

CERIK 시장동향

2023년 11월 월간 부동산시장 동향

| | |
|---------------|----|
| ○ 매매시장 | 2 |
| ○ 임대차시장 | 5 |
| ○ 공급 | 6 |
| ○ 수요 | 9 |
| ○ 금융 | 10 |
| ○ 부동산산업 | 11 |
| ○ 통계요약표 | 12 |

CERIK



CERIK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당월 부동산시장 현황 요약 및 추이 분석

- 지난달 19개월 만에 상승세 전환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 이번 달 들어 가격 상승폭 키워가(0.03%→0.05%)
- 전국 아파트 인허가 상세 유형별 통계가 제공되는 2007년 이후 16년여 만에 가장 적은 1,998호 기록
- 매매 및 전세 수급동향지수 올해 들어 지속 상승세... 가격 상승과 영향 있어

- ◎ **(종합)** 지난 8월까지 이어진 하락장에서 벗어나는 속도는 빨랐지만, 상승세로 접어든 이후 가격 상승폭을 확장하는 데는 소극적. 공급 시장에서는 분양 통계가 수도권에 한해 다소 양호하지만, 그 외 지표는 여전히 어려운 시장 상황 보여줘
- ◎ **(매매)** 수도권 내에서 경기도만 하락하는 현상이 계속되는 반면 서울과 인천의 가격 상승폭이 커져 수도권 전체로는 지난달에 비해 상승폭이 소폭 증가
 - 경기도 내에서도 하락폭이 큰 지역은 최근 옥정신도시 권역에서 공급이 많았던 양주시와, 해당 신도시로의 인구 유출이 있었던 동두천시임.
 - 지방의 경우 8개도에서는 보합세(0%)가 나타난 반면, 지방 5대 광역시에서 0.16%가 줄어 지방 전체로는 0.11% 하락한 것으로 집계됨.
- ◎ **(거래)** 주택 매매거래량은 수도권에서 2.0만 호, 지방에서 2.8만 호를 기록해 전국적으로 4.8만 호를 기록
 - 수도권의 경우 8개월 만에 2만 호에 못 미치는 1만 9,791호를 기록했는데, 인천에 비해 서울과 경기 지역의 거래량 감소폭이 컸음.
 - 지방에서는 5대 광역시는 2.9% 감소하였으며 지방 5대 광역시를 제외한 8개도에서는 9.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 ◎ **(임대차)** 10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 가격은 0.55% 상승해 23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 기록
 - 아파트 월세 역시 상승세가 이어지는 추세임.
- ◎ **(공급)** 극단적으로 적었던 8월 인허가가 9월 들어 증가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을 통틀어 연중 가장 많은 물량이 인허가를 득함.
 -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9월 인허가 실적은 8월에 비해 686.9% 증가함.
 - 10월 전국 분양은 전월 대비 174.7% 증가한 3만 2,719호로 집계됐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월 대비 5배 이상의 분양 실적을 기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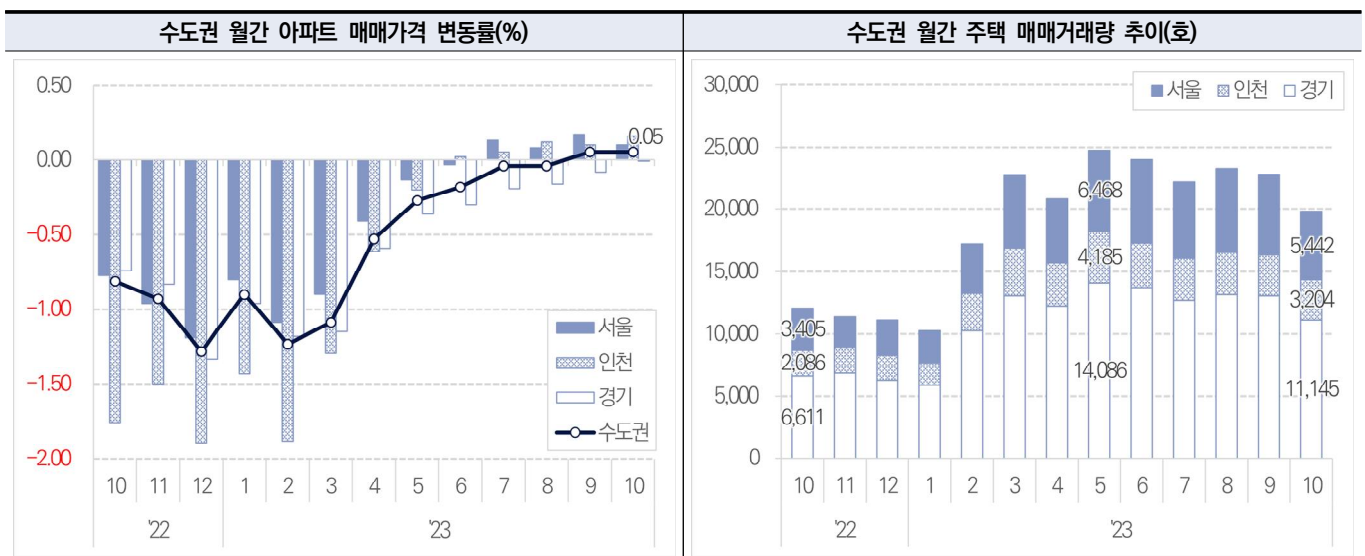
매매시장

1_수도권(서울·인천·경기)

- 10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0.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달에 이어 상승폭 소폭 확대
- 10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2023년 3월 월간 2만 호 돌파 이래 8개월 만에 처음으로 1만 호대로 감소

- ◎ (가격) 10월 수도권 아파트 가격 0.05% 상승해 2개월째 오름세 이어가(전월 0.03% → 금월 0.05%)
 - 이전 저점을 기록한 이후 회복속도는 빨랐지만, 상승세로 전환한 이후 이를 확대하는 데는 더딘 모습을 나타냄.
 - 수도권은 서울과 인천의 월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각각 0.10%, 0.16%를 기록한 반면 경기도 지역이 여전히 지난달에 비해 0.01% 하락하여 전반적으로는 0.05% 상승함.
 - 시군구별로는 양주시의 하락폭이 큰데(MoM -1.59%), 3개월째 월간 하락폭 1위로 집계됨.
- ◎ (거래) 10월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량은 1만 9,791호로 지난 3월 2만 호 돌파 이래 8개월 만에 다시 월간 1만 호대 거래량 기록
 - 인천 지역의 거래량 감소폭이 2.3%에 불과했던 데 비해 서울과 경기의 거래량이 각각 14.9%, 1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감소 폭의 차이가 발생함.
 - 9.26. 공급 대책과 더불어 최근 들어 서울 연접 지역의 서울 편입이 논의되는 등 부동산 거래량을 좌우할 수도 있는 정책들이 발표되면서 향후 거래량에 지역별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임.

수도권 주택매매시장 가격 및 거래 추이



※ 주 : 매매가격 변동률은 조사 시점에 따라 변화 가능성이 있음.

※ 자료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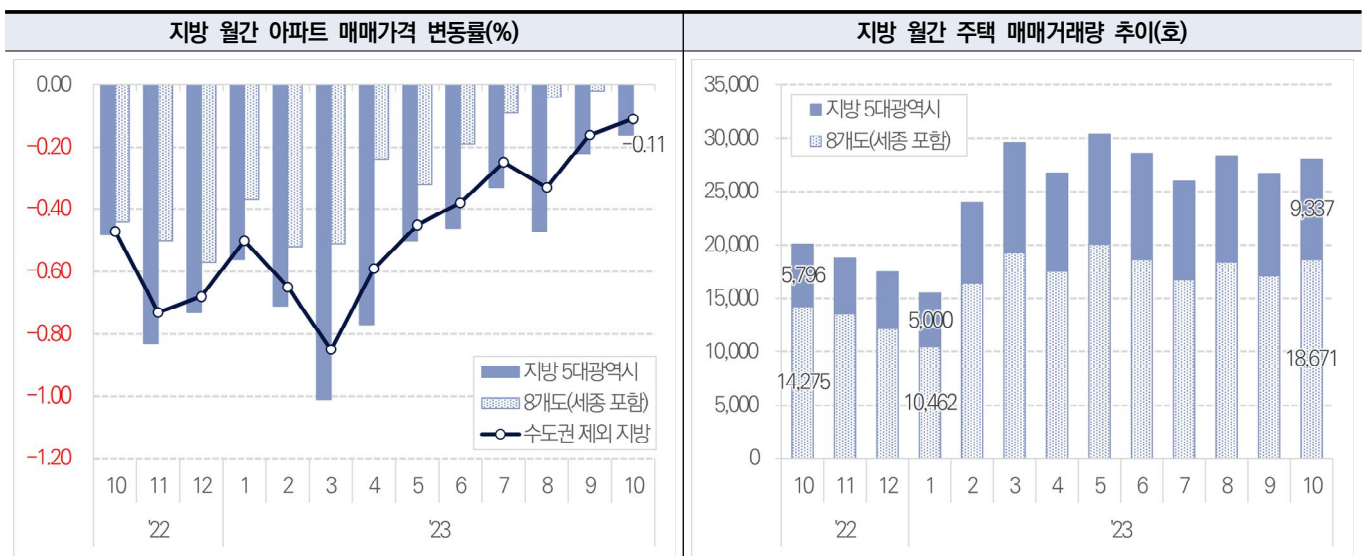
매매시장

2_지방(지방광역시·8개 도)

- 10월 지방 아파트 매매가는 0.11% 하락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됐던 지난달 예상과 상이
- 지방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39.5%, 전월 대비 4.9% 증가한 2만 8,008호

- ◎ (가격) 10월 지방 아파트 매매가는 0.11% 하락, 지난달 0.16%에 비해 하락폭 감소
 - 2023년 들어 변화폭을 재집계하는 과정에서 낙폭이 커지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함. 즉, 상대적으로 낙폭이 과다한 경우 집계에 포함되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추세를 보임.
 - 전국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던 지역은 부산광역시로 MoM 0.32% 하락함.
 - 지방 아파트 가격을 5대 광역시와 이를 제외한 8개도로 구분하여 분석해보면, 8개도에서는 보험세(0%)를 기록한 반면 5대 광역시에서 0.16% 하락한 것으로 분석됨.
- ◎ (거래) 9월 지방 주택 매매거래량을 분석해보면 지방 5대 광역시에서는 2.9% 감소했지만, 그 외 8개도에서는 9.2% 증가
 - 지방 5대광역시 중에서는 부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전월 대비 거래량이 감소
 - * 부산 3.3% / 대구 -5.9% / 광주 -5.1% / 대전 -3.7% / 울산 -7.4%
 - 그 외 지방에서는 경북, 충북, 전남 등을 중심으로 전월에 비해 거래량이 증가
 - * 경북 20.5% / 충북 17.6% / 전남 16.2% 등

지방 주택매매시장 가격 및 거래 추이



※ 주 : 매매가격 변동률의 경우 조사 시점에 따라 변화 가능성이 있음.
 ※ 자료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114

매매시장

3_거래속성

- 서울 주택거래량 소폭 감소했지만, 기타소유권 이전 비율은 이전 수준과 큰 차이 없어 전체 거래의 28.7% 기록
- 보유기간별 구성비는 지난 6월 이후 큰 차이 없이 유지되고 있으나 특례보증자리론의 종료 이후 변화상을 확인할 필요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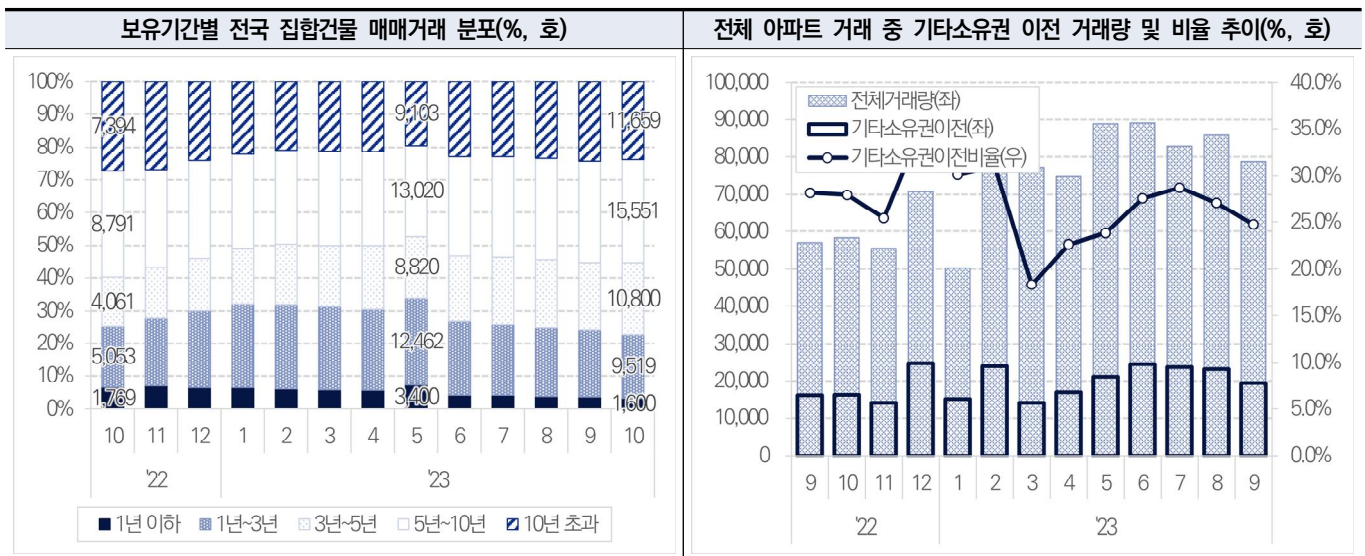
◎ (생애최초 매입) 10월 생애최초 매입자 역시 전체 거래의 5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 1년 한정이었던 특례보증자리론의 제도 연장이 사실상 어려워 보이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판매도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 내년 1월 예정된 (가칭)신생아특례론의 정책 대상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느냐에 따라 생애최초 매입자의 비중이 달라질 것으로 보임.
- 다만 (가칭)신생아특례론의 재원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정책을 예고해 시장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바, 정책 세부 사항 발표 시 자원 확보 방안 및 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보유기간 및 기타소유권) 9월 거래된 집합건물 중 5년 이하 보유자의 매매 비중은 전체의 44.6%로 지난달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으나 1년 이하 단기 보유자의 매매 비중은 3.3%로 나타나 감소세 지속

- 2022년 5월 당시 1년 이하 보유자의 거래량이 6천 건에 달했던 데 비해 올해 9월 거래 건수는 1,600건 수준
- 기타소유권 이전 거래는 준공 감소 등 영향을 받아 지난 7월 이후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율 감소

주택매매시장 거래 속성



※ 주1 : '20년 4월 전국 집합건물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87.8%(동 기준; 경기도, 2020)로, 집합건물의 요체를 공동주택으로 간주하고 분석함.

※ 주2 : 등기 통계는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속성을 지녀 전월 집계와 상이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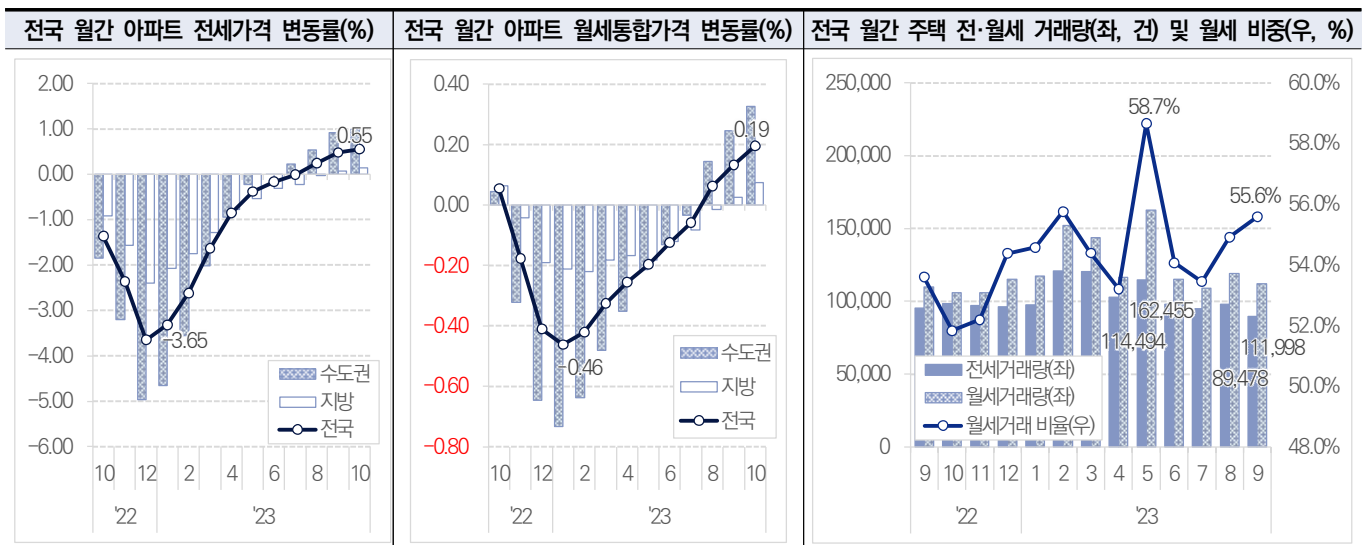
※ 자료 : 한국부동산원, 법원 등기정보광장

임대차시장

-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과 월세(통합)가격 모두 상승폭 확대(MoM 전세 0.55%, 월세 0.19%)
- 10월 전국 아파트 월세가격 상승폭은 0.19%로 집계됐으며 이전 저점 기록한 이후 유사한 속도로 상승폭 증가

- ◎ **(전세)** 10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5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23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 기록
 - 10월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0.98%, 지방은 0.15% 상승한 것으로 집계돼 지역을 가리지 않고 상승폭이 확대되는 양상임.
 - 다만 상승폭이 확대되는 속도는 다소 진정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세자금대출 금리의 인상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전세가의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다음 달부터는 2년 전 대비 낙폭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의 불안정성은 여전하다고 보는 것이 옳음.
- ◎ **(월세)** 지방 아파트 월세통합가격¹⁾, 3개월째 상승세 기록해 3개월 누적 상승폭 0.4% 기록
 - 월세가격의 상승은 수도권에서 더욱 두드러져 3개월 누적 0.7% 상승
- ◎ **(거래량)** 9월 전국 주택 전세 및 월세 거래량은 MoM 7.3%, YoY 1.8% 감소하였으며 전월 대비 거래량을 비교해보면 아파트(MoM 2.9% 감소)에 비해 아파트 외(MoM 11.4% 감소) 유형의 감소폭이 큼.

전국 주택임대차시장 가격 및 거래 추이



※ 자료 :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1) '월세통합가격(지수)'이란 월세, 준월세, 준전세 지수를 각각의 거래량으로 가중 평균한 지수임. 이하 동일함.

공급

1_인허가

-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고루 인허가를 득하며 전년 대비 인허가 실적 감소폭 축소(YoY 32.8% 감소)
- 9.26. 공급 관련 대책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10월 이후에는 전년 대비 인허가 감소폭이 축소할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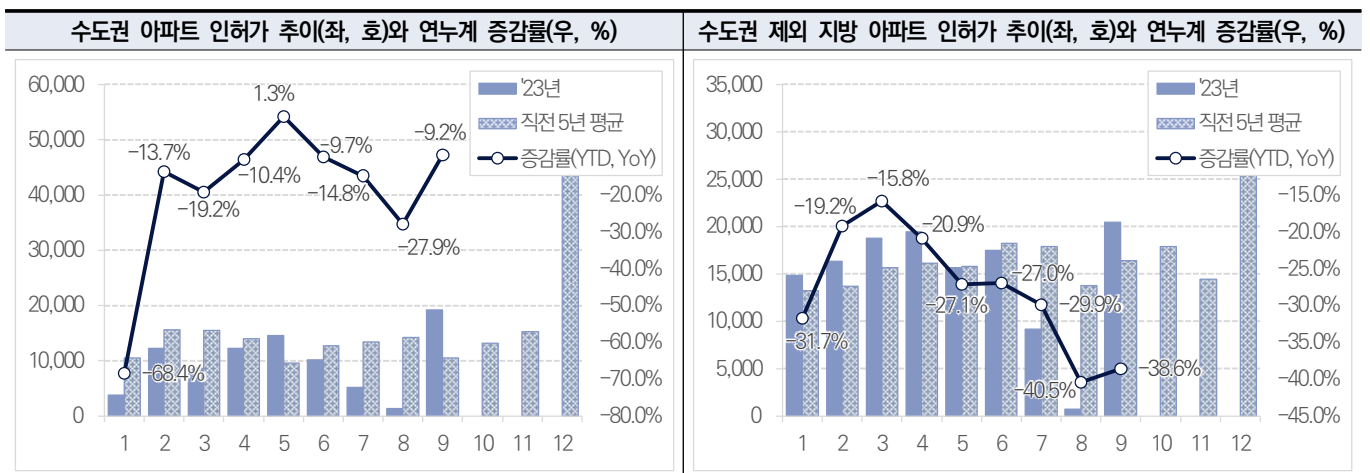
- ◎ (주택 전체) 9월 들어 인허가를 득한 주택은 4만 3,114호로 집계돼 전월 대비 686.9% 증가
- ◎ (APT) 8월 극단적으로 적었던 아파트 인허가, 9월 3만 9,651호를 기록해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연중 가장 많은 물량이 인허가를 득함.
 - 8월 인허가가 적었던 것은 PF 시장의 불안, 장기간의 추석 연휴 등 여러 사정이 중첩된 결과임. 인허가 예정 물량의 이연 효과,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등이 9월 인허가 증가의 원인으로 판단됨.

주택 인허가 현황(YTD)

| 인허가 현황 (호, %) | 지역별 합계 | | | | 공공부문 | | | | 민간부문 | | | |
|------------------|---------|---------|-----------|---------|--------|--------|-----------|--------|---------|---------|-----------|---------|
| | 전국 | 수도권 | 지방 광역시 | 8개도 | 전국 | 수도권 | 지방 광역시 | 8개도 | 전국 | 수도권 | 지방 광역시 | 8개도 |
| 2022년 1~9월 | 380,200 | 131,839 | 87,197 | 161,164 | 16,955 | 7,184 | 6,556 | 3,215 | 363,245 | 124,655 | 80,641 | 157,949 |
| 2023년 1~9월 | 255,871 | 102,095 | 54,852 | 98,924 | 9,584 | 6,152 | 2,377 | 1,055 | 246,287 | 95,943 | 52,475 | 97,869 |
| 전년 동기 연누적 대비 | -32.7% | -22.6% | -37.1% | -38.6% | -43.5% | -14.4% | -63.7% | -67.2% | -32.2% | -23.0% | -34.9% | -38.0% |

※ 자료 : 국토교통부

아파트 인허가 추이



※ 자료 : 국토교통부

공급

2_분양

- 10월 전국 분양은 9월에 비해 174.7% 증가한 3만 2,719호로 조사됐으며 수도권에서 MoM 5배 이상의 분양 실적을 기록
- 11월 분양 예정 물량은 약 2.1만 호 수준임. 12월로 이연하면 분양 일정을 결정하기 어려워 계획과 유사한 수준으로 분양될 듯

◎ (수도권) 10월 수도권 분양은 2만 5,812호로, 9월 5,072호에 비해 5배 이상 증가

- 당초 긴 추석 연휴 및 한글날 연휴 등으로 실제 영업 일수가 감소하는 명절 및 휴일 효과로 인해 10월 분양 물량이 당초 계획만큼 증가하기 어려우려 예상하였으나 9월 분양을 감소시켰던 명절 효과가 10월에 물량 증가로 이어지면서 10월 수도권 분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 이와 더불어 9월 진행된 PF 롤오버 성공 등에 힘입어 수도권 분양물량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풀이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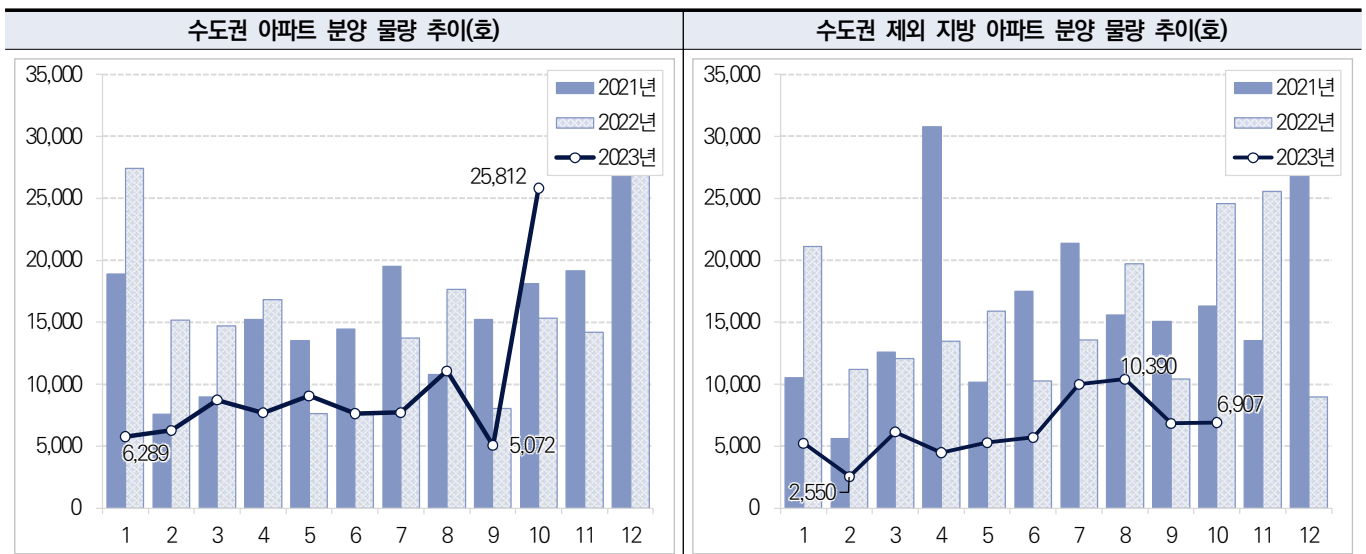
◎ (지방) 지방 분양은 당초 예상과 달리 1.0% 수준의 소폭 증가에 그쳐

- 9월 대비 분양 물량이 크게 늘어난 수도권과 달리 지방의 경우 10월 분양 물량이 7천 호에 소폭 못 미치는 수준인 6,907호로 집계돼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71.9% 감소하였음.

◎ (분양계획) 11월 전국에 분양 예정인 주택은 약 2.1만 호로 예상되며 과거 사례로 볼 때 12월에 분양 물량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11월 예정 물량은 다소 적은 것으로 판단됨.

◎ (입주계획) 연말까지(10~12월) 남아있는 전국 입주 예정 물량은 임대를 제외하면 약 10.4만 호 수준²⁾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 추이



※ 자료 : 부동산114

2) 한국부동산원 입주예정물량 기준 분양, 정비, 조합, 리모델링을 포함하며 실제 일반 입주 가능 물량은 더 적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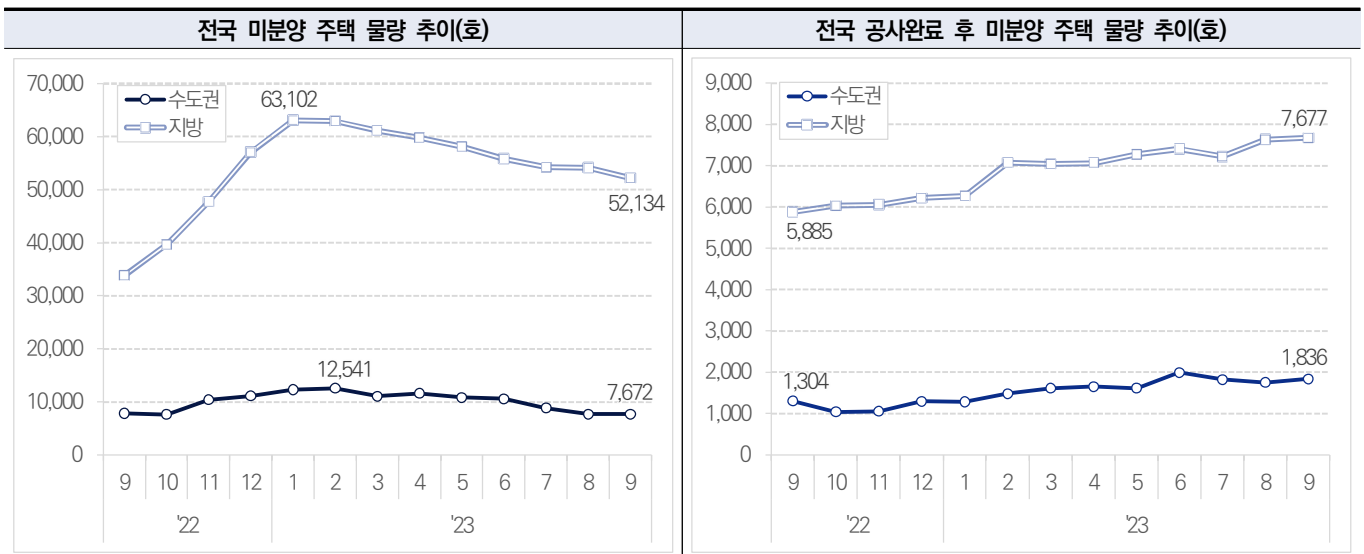
공급

3_미분양

- 9월 전국 미분양, 3.2% 감소한 5만 9,806호로 집계돼 10개월 만에 6만 호 미만으로 감소
- 공사 후 미분양은 소폭의 증가세 계속 이어가 MoM 1.3% 증가(전국 121호↑)

- ◎ **(미분양)** 9월 수도권 미분양은 4호(0.1%) 감소했고 지방은 2,001호(3.7%) 감소해 전국적으로 3.2% 감소한 것으로 집계돼
 - 2022년 11월 6만 호를 초과했던 전국 미분양 물량은, 2개월 만에 직전 고점인 7.5만 호를 기록한 이후 지속해서 10개월 만에 6만 호 미만으로 감소(5만 9,806호)
 - 전월과 달리 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거의 해소되지 않았으며 지방에서는 2023년 들어 기록한 추세와 유사한 속도의 물량 해소가 이어짐.
- ◎ **(공사 후 미분양)** 9월 전국 공사 완료 후 미분양 주택은 수도권에서 85호, 지방에서 36호 증가해 지난달에 비해 1.3% 증가함.
 - 공사 완료 후 미분양이란 사용승인일까지 분양되지 않은 주택을 집계한 것임.
 -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공사 후 미분양 주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 서귀포시(589호)로 나타남.
 - 과거 미분양 증가가 시작된 시기를 상기해보면 공사 완료 후 미분양 물량이 계속해서 감소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우며 본격 감소 시기가 언제가 될지 관심을 가져야 함.

전국 주택 미분양 물량 추이



※ 자료 : 국토교통부

수요

- 매매 및 전세 수급동향지수는 올해 들어 9개월 동안 연속 상승했지만, 10월 들어 처음으로 하락세 기록(90.2p)
- 10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심리지수 108p로 집계돼 수급지수와 동반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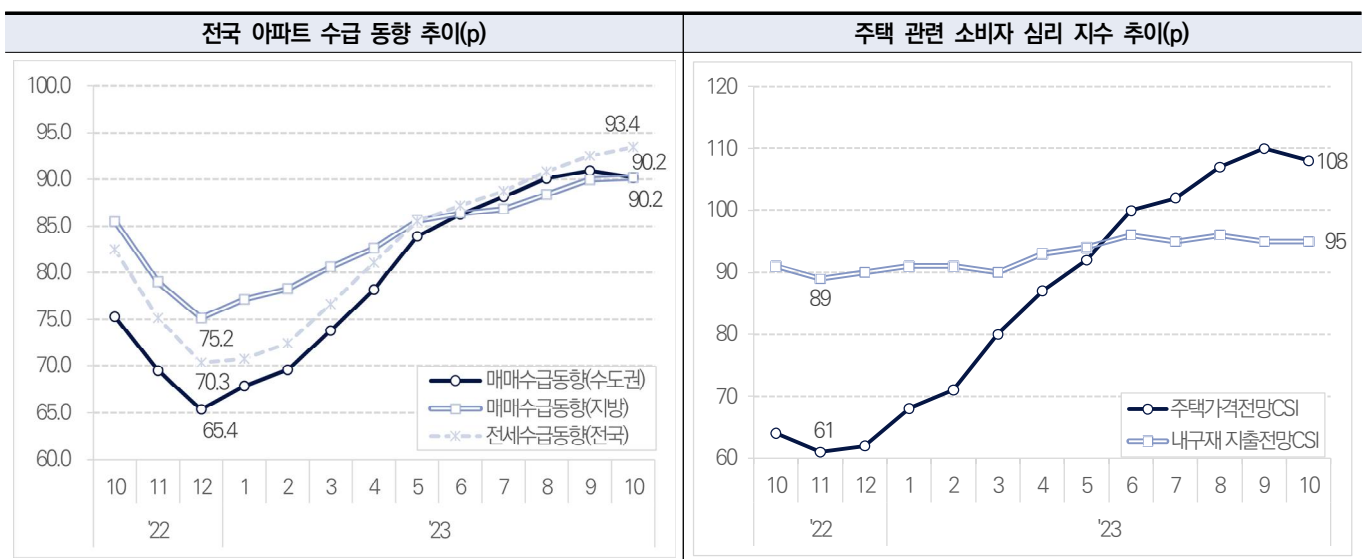
◎ (수급동향) 10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90.2p, 9개월 연속 상승 종료

-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동향지수는 지난 12월 65.4p를 기록한 데 이어 9개월 연속 상승해 9월 90.9p를 기록하는 등 25p 이상 상승함.
- 반면 10월 들어서는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0.7p 하락한 90.2p를 기록함.
- 당초 우리 원 전망에서는 완화 기조였던 주택 금융 상품의 판매가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수급 동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당초 예상과 유사한 흐름이 나타남.
-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비교하면 수도권이 지방에 비해 미세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권 매매 수급 상황이 부진한 만큼 내달 지방 수급 상황도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

◎ (소비자심리) 10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심리지수는 108p로서 지난달에 비해 2p 하락

- 한편 10월 가구, 가전 등 내구재 지출 전망은 95p를 기록해 90p 중반에서 큰 폭의 증가도, 감소도 없이 유지되고 있는 현상을 나타냄.

전국 아파트 수급 동향 및 소비자 심리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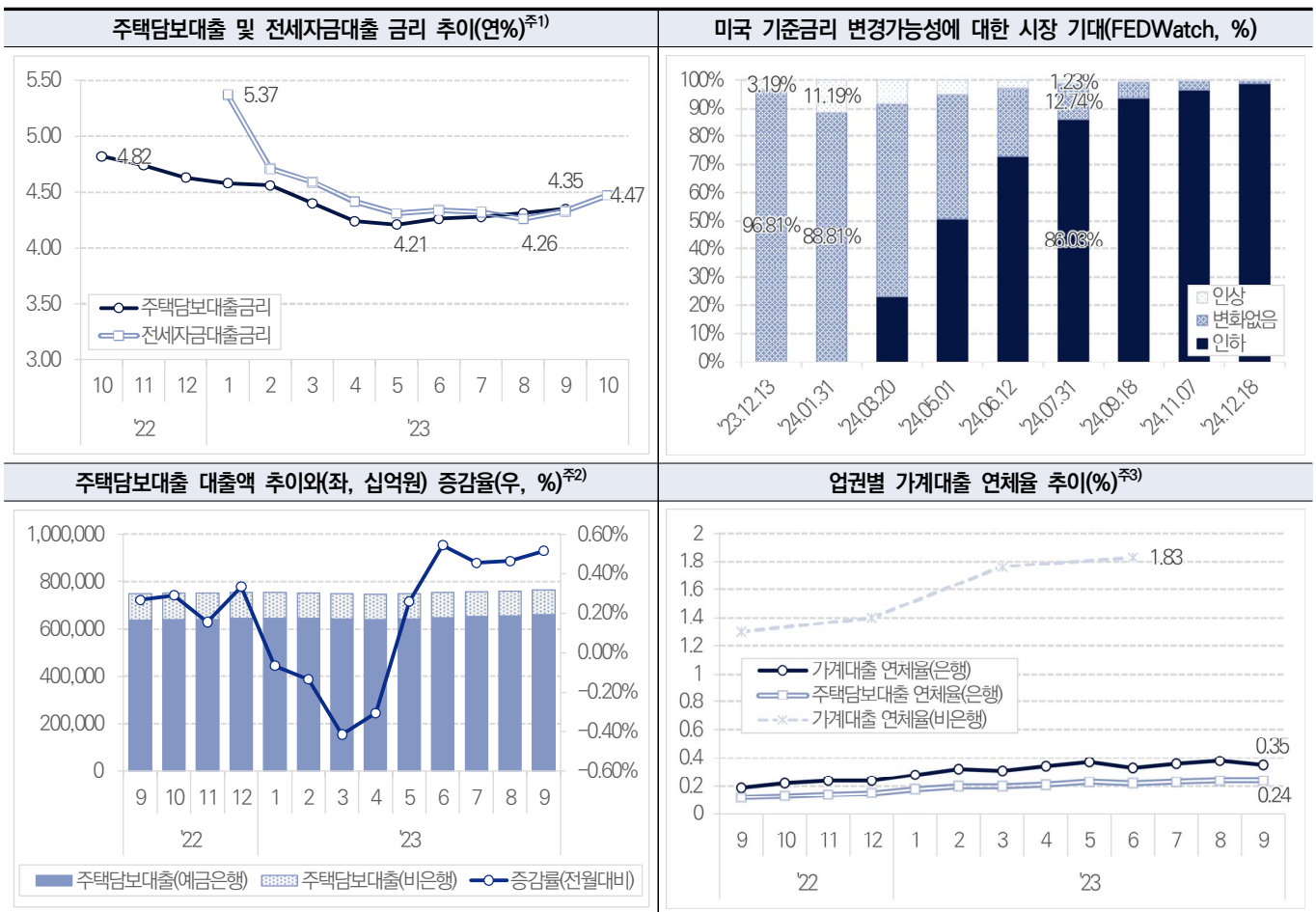
※ 주 : 주간 아파트 동향에서 생산되는 수급동향 자료 중 매월 말 지수를 월간 대표 지수로 처리하여 분석함.

※ 자료 : 한국부동산원, 한국은행

금융

- (금리) 9월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 실행 기준)는 4.35%로 집계돼 전저점을 기록한 이후 0.14%p 상승
 - 10월 전세자금대출의 신규 실행 기준 중위 금리는 4.47%로 집계됐으며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동기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미루어 판단할 때, 향후 정책적 요인이 개입하지 않는 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음.
- (연체율 추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0.24%로 유지되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달 대비 0.0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다소 완화됐지만 여전히 연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의 연체율을 기록하고 있음.

주택 시장 관련 금융 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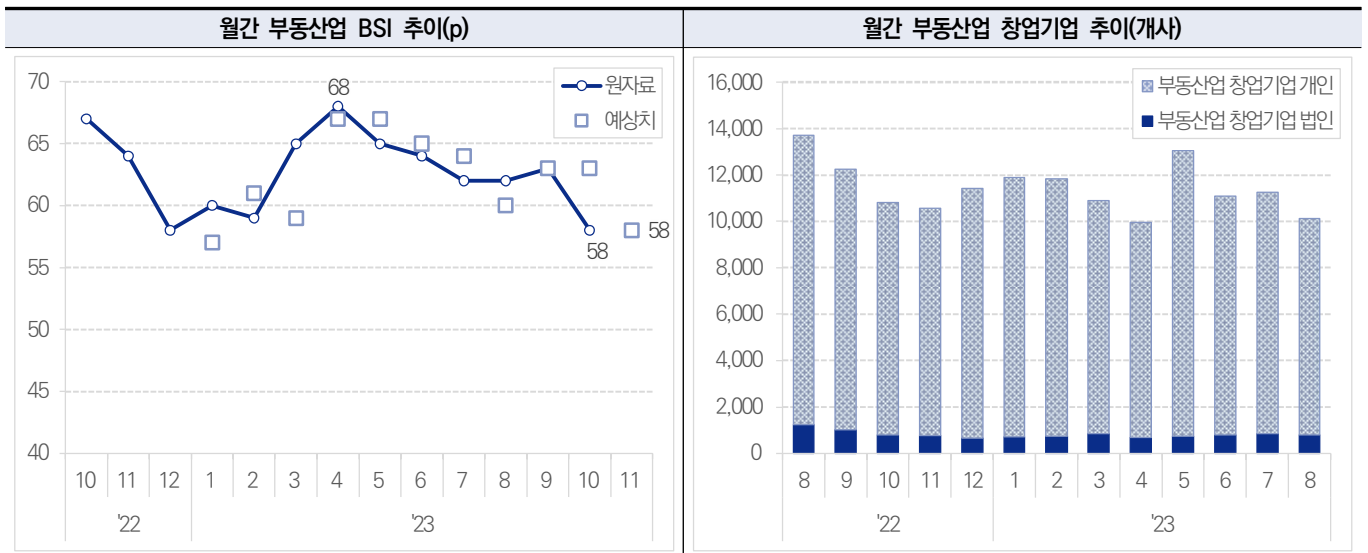


※ 주1 :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예금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HF 월간 은행별 전세자금대출 금리의 중위값(짝수인 경우 중위수 두 값의 평균)임.
 ※ 주2 : 본 자료에서 비은행이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우체국예금, 종합금융회사 등 은행이 아니지만 예금을 취급하는 기관을 말함. 이하 같음.
 ※ 주3 : 비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 자료는 분기별로 집계되며, 임의로 분기 말(3·6·9·12월)에 입력하였음.
 ※ 자료 : 한국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감독원, Chicago Mercantile Exchange

부동산산업³⁾

- ◎ (부동산업 BSI) 2023년 10월 부동산업의 업계 현황 기준 BSI는 58p로 집계돼 지난달 63p에 비해 5p 하락한 것으로 집계
 -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지난 2022년 12월 BSI가 58p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현재 일선에서 느끼는 업황의 어려움을 대변함.
 - 지난 10년간 업황 BSI가 60p 이하로 하락한 기록한 전례를 찾아보면, 앞서 언급하였던 2022년 말을 비롯해 COVID-19가 급속히 확산했던 2020년 초, 2009년 이후 몇 년간 이어진 대세 하락기의 종료 시점인 2013년 상반기를 들 수 있음.
 - 특수상황이었던 2020년 초를 제외하고 2013년 당시 수도권 중심의 업황 분위기를 회상해보면 분양 경기 및 기존 주택 가격의 가격이 저점을 기록하던 시기임.
 - 당시 상황처럼 저점을 기록하고 시장이 반등할지는 지켜봐야 하겠으나, 11월 업황 전망 역시 58p로 집계돼 당분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 (부동산업 창업기업 수) 8월 부동산업 창업기업은 10,138개로 집계돼 MoM 9.9%, YoY 26.0% 감소
 - 올해 4월 기록적인 창업기업 수 저조⁴⁾를 기록한 이후 다소 회복되는 듯했으나 재차 감소

부동산업 경기지수 및 창업기업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중소벤처기업부

3) 본 고에서는 '부동산산업'의 범위를 데이터 출처의 정의에 따라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L.부동산업(68)'으로 정의함.

4) 이는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속칭 전세사기)의 영향과 임대차 거래 신고제 유예 기간 종료의 여파로 풀이됨(현재는 2024.5.로 재연장).

부동산시장 통계요약표

| 항 목 | 변화율 · 변화량 | | | | | 최신 집계치 ^{주1)} | 최근 5년 변화 추이 | | |
|------|-----------------|-----------|---------|-----------|---------|-----------------------|-------------|-----------|--|
| | 직전 5년 | | 직전 3년 | | YoY | | | MoM | |
| | 고점 | 고점대비 | 고점 | 고점대비 | - | | | - | |
| 거시경제 | 경기선행지수 (p) | 111.8 | 0.0% | 111.8 | 0.0% | 2.2% | 0.4% | 111.8 | |
| | | 94.7 | 18.1% | 101.8 | 9.8% | | | | |
| 거시경제 | 소비자물가지수 (p) | 113.4 | 0.0% | 113.4 | 0.0% | 3.8% | 0.3% | 113.4 | |
| | | 98.9 | 14.6% | 100.1 | 13.3% | | | | |
| 가격지수 | 수도권 아파트 매매 (p) | 481.4 | -8.7% | 481.4 | -8.7% | -5.4% | -0.0% | 439.6 | |
| | | 304.1 | 44.6% | 399.5 | 10.0% | | | | |
| 가격지수 | 지방 아파트 매매 (p) | 334.8 | -7.5% | 334.8 | -7.5% | -4.8% | -0.0% | 309.8 | |
| | | 240.5 | 28.8% | 289.1 | 7.1% | | | | |
| 거래량 | 수도권 주택 매매 (건) | 75,725 | -73.9% | 63,203 | -68.7% | 63.5% | -13.0% | 19,791 | |
| | | 10,299 | 92.2% | 10,299 | 92.2% | | | | |
| 거래량 | 지방 주택 매매 (건) | 77,078 | -63.7% | 77,078 | -7.5% | 39.5% | 4.9% | 28,008 | |
| | | 15,462 | 81.1% | 15,462 | 81.1% | | | | |
| 공급 | 전국 아파트 분양 (호) | 63,520 | -48.5% | 63,520 | -48.5% | -11.7% | 174.7% | 28,008 | |
| | | 7,039 | 364.8% | 8,839 | 270.2% | | | | |
| 공급 | 전국 주택 미분양 (호) | 75,438 | -20.7% | 75,438 | -20.7% | 43.8% | -3.2% | 59,806 | |
| | | 13,842 | 332.1% | 13,842 | 332.1% | | | | |
| 금용 | 주택담보대출 금리 (%) | 4.82 | -0.47%p | 4.82 | -0.47%p | -0.44%p | 0.04%p | 4.35 | |
| | | 2.39 | 1.96%p | 2.47 | 1.88%p | | | | |
| 금용 | 주택담보대출잔액 (십억 원) | 764,776.0 | 0.0% | 764,776.0 | 0.0% | 2.1% | 0.5% | 764,776.0 | |
| | | 597,077.5 | 28.1% | 667,676.2 | 14.5% | | | | |

※ 주1 : 통계 발표 시점에 따라 당월 혹은 전월 집계치를 활용함.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제외한 모든 수치는 소수점 이하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분석함.
 ※ 주2 : 가격지수는 자료의 추가 수집 등 지수 작성 기관의 사정에 따라 수시 갱신될 수 있음.
 ※ 자료 :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한국은행, 부동산114

약어표(가나다 順)

| 용 어 | 내 용 | 비 고 |
|-----|-----------------------------------|--------------|
| BSI |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
| CSI | 소비자심리지수(Consumer Sentiment Index) |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
| MoM | 전월 대비 변화율(Month-on-Month) | |
| YoY | 전년 동월 대비 변화율(Year-on-Year) | |
| YTD | 연초 대비 누적 변화율(Year-to-Date) | |